

“군대 축구 같은 교사 배구대회 폐지”

“군대에서 하는 축구 같은, 초등 학교 교사 배구대회 폐지해야 합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친목이라는 이유로 매년 학기마다 시행하고 있는 친목 배구대회를 청산해야 할 적폐로 지적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8일부터 23일까지 교사와 교직원, 학생,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은 결과 총 128건이 접수됐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년 학기마다 시행하고 있는 6개교 4개교 3개교 친목 배구대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교사들은 “친목 배구대회의 목적과 의의가 퇴색된 지 오래고 다른 학교들과 친목이 다져지는 게 아니고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경쟁심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일부 교장은 게임에 지고 오는 날에는 그 날부터 교사들에게 배구 연습을 시키고 있어 못하는데 억지로 해야 하는 교사들이 힘들어한다”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유까지 소명해야 하고 이런 행사로 인해 수업준비와 관련 업무 처리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교사들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 개선, 연가 신청사유 미 기재, 원로교사 지원 제도화, 보직기회 개선, 장학시간 협력체제 구축 및 업무 지속성 유지, 기간제 교사 선발 방식 개선, 대학 수시·정시 모집 전형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시험 간소화와 교육복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고등학생은 “긴 연휴 후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다 보니 연휴기간 공부할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불안감이 컸다”며 “연휴 전에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학생은 “중간 기말고사 외에도 많은 양의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나와 학원에 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학교 과제, 학원 숙제를 하다보면 1년 내내 숨이 막힐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사립고에 다니는 한 학생은 “공립고는 자율학습이 없는 교육공동체의 날”을 주 1회 시행하고 있는데 사립고는 월 1회에 그치고 있고 그것도 형식적이다”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날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복지 향상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시험이 많다보니 아이들이 학원에 매달리게 되고 책임은 시간이니 봉사활동

교사·학생·학부모 등 정책제안 128건 접수

‘광화문 1번가’ 건의 등 내년 교육정책 반영

다닐 수 있는 여유도 없다”며 “신학 학습보다는 연습 복습으로 기초를 다져가도록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그림그리기 대회 등 각종 행사 요강을 보면 학교장

추천이 필수인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생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제안 내용에 대해 각 부서별 검토를 거쳐 정부의

‘광화문 1번가’에 건의하는 한편 전국교육감협의회 안전 제안 2018년 주요업무 반영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김철호 정책기획관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많은 제안이 제기된 것 같다”며 “향후 광주교육정책 수립시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제3회 타이페스티벌 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3회 타이페스티벌'에서 참가한 무용가들이 대국의 전통춤(골려야우)을 추며 행사 시작을 알리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점거 농성 300일...“1~2개월이 중요”

3일 5·18월 단체와 오월어머니들이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지 300일을 맞는다.

광주시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대책위)’와 함께 오는 8월 말까지 최종 복원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앞으로 1~2개월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시와 대책위에 따르면 시는 5월 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8월 말까지 옛 전남도청 최종 복원안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앞서 이달 중으로 도종환 신임 문화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지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협조를 도울 것을 부탁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이달 중으로 문 대통령 면담도 추진한다.

이들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복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9월부터는 내년 정부 예산에 복원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대책위 측은 “앞으로 1~2개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옛 도청의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 위한 자료조사와 수집 활동도 벌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남대 5·18연구소가 ‘옛 전남도청 복원 보존 자료조사 및 수집 TF’를 구성해 자료와 증언을 모으고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한다.

또 본관과 민원실, 별관 경찰청, 상무관 등 옛 전남도청의 내·외부에 대한 복원기초자료 조사, 민주평화교류원 공사 당시 자료 확보 등도 추진한다.

기본적인 복원 방침은 이미 세워졌다.

대책위는 도청본관, 별관, 민원실, 상무관을 5·18 사적지로서 원형 복원한 뒤 콘텐트를 가미하고 특히 당시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방송실과 상황실 등은 특화·보존키로 했다. 현재 계단과 복도 형태만 남은 도청 본관 내부는 원형 복원 후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도청 별관과 민원실, 상무관 등도 원형을 복원하거나 보존한 뒤 5·18 당시 모습을 재현한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관계자는 “경찰청을 포함한 사적지들은 복원하고 5·18최후의 항쟁지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줘 5월정신의 심장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점거 농성 300일을 맞아 3일 옛 전남도청 별과 1층에서 300일 맞이 보고 및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최남규 기자

“담배 왜 안 팔아” 편의점 업주 폭행 50대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편의점 업주를 때린 혐의(폭행)로 한(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A(48·여)씨의 이마 부위에 담배와 지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한씨는 “맛있는 담배가 없다”며 A씨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씨가 자신이 원하는 담배를 팔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주차장까지 음주운전·경찰관 폭행한 40대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로 신모(4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25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 한 아파트 입구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다.

또 같은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A(34)경사와 B(29)경정의 가슴 등을 수차례 밀치고 손을 쥘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다고 주장하는 신씨는 아파트 입구 주변 도로에 차를 정차한 뒤 주차장까지 물고 가는 과정에서 사행·재동을 반복,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까지 불렀는데, 음주 측정하는 게 억울하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파트 입구와 30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파출소에서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단 1m만 운전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대리운전을 할 경우 주차장까지 기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01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출입이 통제·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등)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단,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은 상황에 따라 면허취소·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형택 기자

아버지 둔기로 폭행한 아들 긴급체포

TV소리를 줄이지 않자 아버지 둔기 등으로 폭행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39)씨에 대해 아버지 B(76)씨를 폭행한 뒤 방치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B씨가 TV 소리를 줄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조사 중 B씨의 몸에서 피가 난 상처와 폭행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다름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8일 밤 아버지에게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했는데 줄이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진 것이 A씨의 폭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명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폭행에 대한 부분으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지만 부검 결과에 따라 혐의가 폭행치사로 바뀔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도 “B씨가 고령인데다 사인이 심정지로 나올 수도 있어서 자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공감·지역발전·지역복지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2015달양 세계대나무박람회
World Bamboo Fair Damyang KOREA 2015
2015.09.17 - 2015.10.31 축주전

시력보호에도 베리굿 향노화에도 베리굿

대숲맑은 담양 블루베리

베리굿

berry good

대한민국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지구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이 키웁니다.

주문문의 담양블루베리향토사업단
(061) 381-7579